

1. 시라큐스 대학 초기 적응사항

처음 경험하는 해외에서의 학업과 생활에 부푼 기대를 안고 15시간의 비행 끝에 시라큐스에 도착하였다. 2012년 12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남은 겨울이었는데 미리 선배에게서 들었던바와 같이 시라큐스는 눈의도시였다. 도로와 집 주변에 눈이 30Cm 정도 쌓여 있어서 학교나 밖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다만 시라큐스시가 새벽녘부터 신기할 정도로 눈을 효율적으로 치우고 소금을 뿌려서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시라큐스 눈치우는 행정시스템은 꼭 벤치마킹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시라큐스 대학 초기 적응사항은 학교에 등록하는 것과 차량구입 및 보험, 거주할 아파트 계약, 아이들 학교 및 병원등록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큰 이슈이다. 학교 등록은 미리 선배공무원이 안내를 해 주어서 큰 문제가 없었다. 오리엔테이션과 학교등록, 외국학생 지원센터 가입(Slutsker Center for International Services), 주차권 구입, 학점 및 교과목 신청, 그리고 교재구입 등은 공무원 선배들의 자문과 외국인 동기생의 조언을 통해 처리하였고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정착생활 준비측면에서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중학교 6학년(이곳 학교구는 5학년부터 중학교에 진학)인 큰딸과 초등학교 4학년인 작은딸이 학교 등록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신체검사 기록이었다. 한국에서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기록을 인정하지 않아서 새로 미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와 몇가지 예방접종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2. 전반적인 교육의 질

전반적인 대학원 수업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만족하는 편이다. 이미 KDI 에서 1년차 영어수업과 필수, 선택과목 수강을 해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다만, 우리나라와 비해 시라큐스 대학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교과목 구성이나 교수의 강의 전달방식이 실제 사례 중심의 토론과 과제평가, 그리고 쌍방향에 의한 피드백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참여식 수업의 장점이 십분 발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는 해당 시간의 이론적 배경과 문제점 등을 개론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문제의 중요도와 해결방식 등은 학생이 팀을 이루어 토의해서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팀발표에 대해 비판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또하나 특징적인 것이 팀발표인데 대부분의 과목에서 발표, 리포트작성 등이 팀단위로 이루어져 협업을 통한 의사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팀숙제는 때때로 의견다툼과 입장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문화와 역사가 다른 외국학생과 의견조율을 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실질적인 체험을 하게 해 주었고 동료료서의

우정을 배울수 있어서 유익했다. 그리고 실제로 최종 리포트의 수준이 처음 보다 크게 향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맥스웰 행정대학원은 학부 졸업대상자를 위한 MPA 학위와 현장 관리자를 위한 EMPA 그리고 국제관계 관련 MIR, EMIR 학위 등을 제공하고 있다. GMP 과정의 경우, EMPA 과정을 졸업하는데 30학점이 필요하고 이중 KDI에서 수강한 6학점을 Transfer 학점으로 인정받아 1년안에 나머지 24학점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우, 2013년 봄학기에 4과목 12학점, 여름학기 2과목 6학점, 가을학기 2과목 6학점을 수강하였다. 첫 봄학기에 4과목을 수강해보니 영어강의 청취의 어려움과 외국학생과의 문화적 차이, 토론문화에 대한 경험미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성적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기말 레포트 작성과 발표준비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봄학기가 끝나고 나면 3개월간의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어 가족과 단란한 시간과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여름학기(계절학기) 수업은 본인의 취향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 가을학기에 4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귀국준비와 겹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과목을 신청했다. 여름학기의 특징은 단기 집중 수업(5일, 7일, 30일, 60일 과정)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자신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을학기에는 필수이수과목(3과목, 9학점/Education Seminar, Policy Analysis, Master's project) 중 이수하지 않은 2과목을 수강하였다. 맥스웰에서는 졸업 필수 9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은 타 대학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개인의 관심에 따라 학제적인 연구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언해 본다면, 첫 봄학기에 힘들더라도 3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해서 자신의 아카데미한 역량과 한계를 체험에 보길 권하고 싶다. 레포트 작성, 영어발표 등이 기말에 집중되어 있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나의 역량을 최고조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는 것도 유학생들의 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성적은 한국학생의 경우, 영어발표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대부분 Paper 질이 우수해서 최소 B+ 또는 A-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시라큐스 대학은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렌트비가 비싸므로(약 월 1,000불)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근처의 아파트(넵힐, 스톤게이트, 케리지)를 1년단위로 렌트하여 생활하며 월 렌트비는 약 750불에서 950불 내외이다. 처음 미국에 정착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음식인데 시라큐스에는 1,50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 식료품 가게(안스, 한스)와 한인식당(비원, 도쿄서울, 초롱이식당)이 있어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또는 한국지인들을 만날 때 가끔씩 이용한다. 맛과 품질은 한국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밑반찬과 한식을 먹을 수 있다. 처음 시라큐스 올 때 건어물, 건나물 등 식재료를 가져오면 여기에서 구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비싸므로 유용할 수 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시라큐스는 뉴욕주 북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15만명의 작은 도시이다. 과거에는 General Electric 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었고 5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호수에서 뉴욕에 이르는 Canal이 통과하는 주요지점으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의 하나로서 관내 우수한 기업이 시라큐스 대학에 기부하여 건설한 5만명을 수용하는 미식축구 돐 구장이 유명하다. 또한 주변에 크고 작은 호수(핑거레이크, 스케니텔레스 등)가 많아 관광지가 많고 특히 겨울에 호수의 증발로 인해 눈이 많이 내려 '눈의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라큐스는 겨울레포츠의 천국이라 불리우며, 겨울이 되면 스키, 스케이팅, 아이스 스케이팅, 노르딕 등 겨울스포츠를 원없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또한 미국 연어낚시로 유명한 Salmon river가 근처에 있어 전국에서 낚시광들이 즐겨찾는다. 시라큐스 인근에 Onondaga County에서는 학교와 연계하여 3학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 자치행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은 지원해 볼 것을 권한다. 미국의 행정체계는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State Gov't)와 지방정부(Local Gov't)가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분권체계가 발달되어 있으며, School district, Postal district 등 다양한 특수행정구역이 발달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체계와 비교된다. 최근 뉴욕주 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에 대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City, County, Town, Village 등)간 자원배분에 대한 갈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미국에서 GMP 2년차 1년간의 학업과 생활을 되돌아켜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좁았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잘 사는 곳이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교차한다. 물론, 이러한 생활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의 드넓은 자연환경과 도시구조, 짧은 역사, 개척민의 정신 등 미국적인 것에 대한 가치와 이상을 동경해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생활하기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장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인건비가 매우 비싸서 가능하면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 건물 짓기, 의약시스템 등이 점점 사람의 손길보다 컴퓨터 시스템 및 개인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여하튼, GMP 과정이 새로운 체험과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문물과 제도를

공부하고 체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1년간의 생활이 많은 다른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내면화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다. 향후 가능하다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GMP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Visa 발급이나 출입국 관련해서는 주변의 정보를 참고하면 큰 문제는 없었다. 다만, 미국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이나 서적 등을 한국으로 보낼 때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관세 등 추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되겠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KDI에서 수업을 들을 때부터 생각이 나는 것은 한국학생의 경우, 영어 토론, 스피킹에 소극적이어서 수업 또는 발표시간에 활발하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국 학생의 경우, 영어에 대한 유창성이 좋아서인지, 발표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는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부실하거나 영어로 생활을 한 경험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평소에 조금씩, 그리고 KDI 수업시간에 용감하게 토론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조언해 주고 싶다. 나와 함께 입학한 중국인 친구가 처음에는 정말 발음도 안 좋고 어순도 엉망인 소위 짱꼴라 영어를 구사하는데, 계속 수업시간마다 발표를 적극적으로 해서인지 졸업할 즈음에는 훌륭하게 교수님과 네이티브 어메리칸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역시 영어는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많이 노출해서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빨리 습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